

편집부

## 채란계 봄철 사양관리

**산** 란사료 생산량이 '88년 11월(120,122%) 집계  
가 '87년 동월보다 약 4%정도 낮아지면서  
계란값이 '89년 1월19일 현재 특란이 62원으로 인상  
되어 앞으로는 계속 상승세가 될 조짐을 예고하고  
있다.

그간 저난가에 장기간 불황을 지나오면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생산자들이 양계업을 포기하였거  
나 생산규모를 감산하여 일단 빈계사 덕분에 계란  
생산이 감소한 힘이 가장 크고, 하반기에 뉴캐슬로  
인한 육성계의 다량 폐사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본다.

무엇보다 저난가에 시달려온 채란업자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으며 점차 기온이 상승하는 봄으로  
가는 시점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성계 및 육성계를  
잘 관리하여 산란피크의 지속과 특란 생산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자.

### ○영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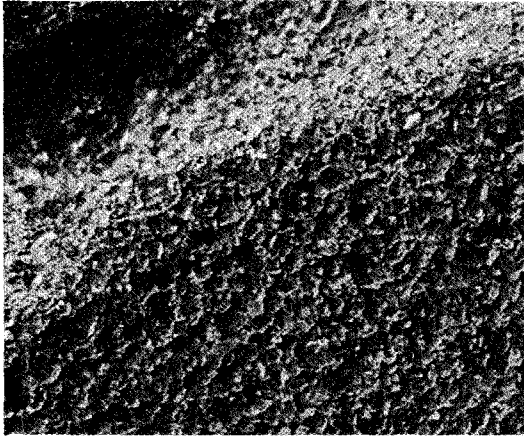
농장마다 관리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를 것으로 보  
는데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하여  
보면 우선 닭의 영양관리는 외국의 경우에는 자가  
배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오직 공장에서 만들  
어내는 배합사료를 가지고 급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나 일령이나 품종에 따라 급여량의 결정에 의해 산  
란율이 달라진다.

닭에 있어서 육성기간 동안(0~20주령)의 영양 공  
급은 그 닭의 체중과 가장 밀접한 영향이 주어지게  
되므로 육성기간에 급여하는 사료 3가지를 구분하여  
보자.

#### 1) 초생추사료(starter)

부화직후 병아리에게 먹이는 사료가 초생추사료인데 사료의 영양가치가 고단백, 고열량, 광물질 및 비타민 함량이 높은 사료이다.

육성기간중 초생추사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병아리는 충분한 성장이 어려워 외부로부터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약한 약주가 된다.



## 2) 중추사료(Grower)

중추사료는 단백질 함량이(17%) 중간으로 열량도 ME 2,856kcal/kg이 된다. 닭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중추사료를 급여하는 기간을 닭의 성장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중추사료를 제대로 급여하지 않으면 산란기간중 폐계가 많이 나온다.

## 3) 대추사료

대추사료는 저단백질(14%, ME2865kcal/kg)의 사료이다. 대추 과정은 초생추나 중추를 거치면서 성장한 체구를 강인하게 만드는 시기로 산란준비 기간이기도 하다. 대추기간에는 체중증가가 많지 않은 특징도 있다. 산란을 계속하려면 먼저 체력이 튼튼해야 하는데 대추기간에 체력이 형성된다.

## ○부리자르기

### 1) 목적

부리자르기는 항문을 쪼는 습성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급식시 입자가 큰 알맹이사료만 골라먹는 것을 방지, 파란을 방지, 성질온순 등의 이유에서 병아리 때 4~5일령에 실시한다.

### 2) 방법

부리를 완전히 자르지 않으면 자른 부분이 다시 자라게 되어 효과가 없으므로 성장점을 완전히 자르도록 한다.

이때 너무 짧게 자르면 사료통에 있는 사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

## ○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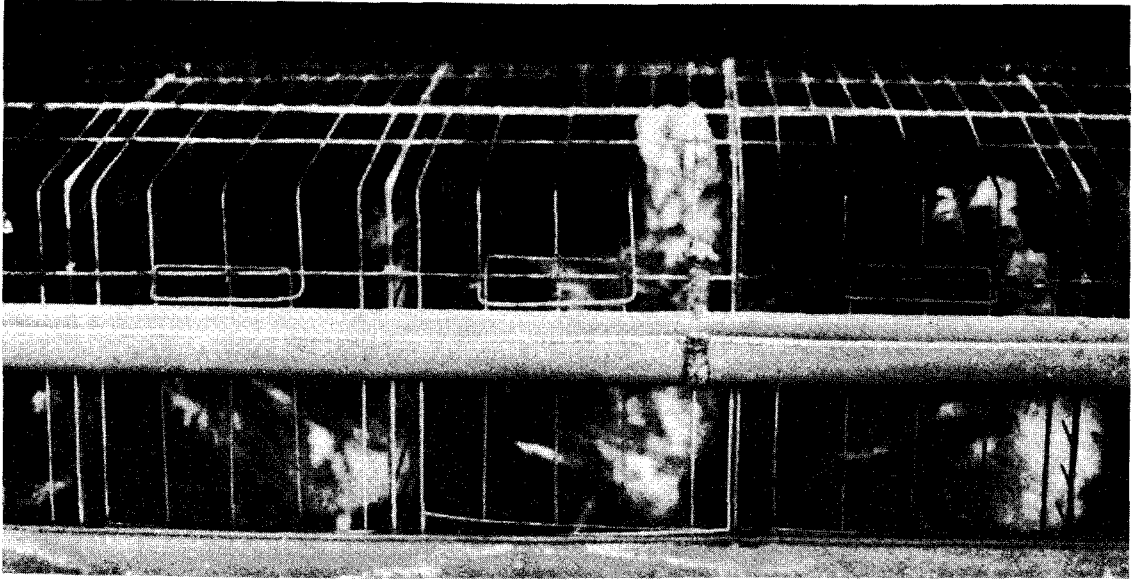
긴 겨울에서 봄이 되면 일단 환기를 고려하여 보온시설을 걷게 된다. 그리고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게 되므로 점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닭은 햇빛의 자극에 따라 눈을 통하여 성성숙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계속적인 점등보다는 시간의 변화를 주므로 인하여 성성숙의 촉진이나 지연을 시킬 수가 있다. 곧 점등시간을 제한하면 성성숙이 지연되고 점등시간을 늘리면 촉진이 된다.

육성시부터 점등시간의 조절을 이용하여 초산일령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무리하게 초산일령을 점등에 치중하려고 보면 성계시에 산란지속성이나 산란율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므로 적당히 실시해야 한다.

특히 봄철이 되면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져 점등을 실시하지 않으면 병아리가 숙성하여 초산일령이 당초 예정보다 빨라지게 된다.



## ○체중관리

체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성계가 자라서 성계가 되었을 경우 얼마만큼의 계란을 생산하느냐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특란 선호경향이 높은 연유로 볼 때 특란 생산이 얼마만큼이나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육성시부터 산란율을 높이고 특란 생산을 잘 할 수 있는 닭으로 키우는 작업이 고려되어야지 다 큰 닭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때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항목이 체중조절인데 육성시에 닭을 너무 크게 키우거나 너무 작게 키워도 산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개 6주령까지는 영양성분이 높은 사료를 급여하여 가능한한 육성계를 최대한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끔 보게 되면 육성시 계란값이 저조하면 일단 사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료량을 줄여 급여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런 사양관리를 한 닭은 육성시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부실한 닭이 된다. 그러다가 계란값이 상승하게 되면 산란율을

높이기 위해 사료급여를 대폭 늘려 일단 목표체중에 도달시키려고 하지만 12주령 이후 목표에는 도달하더라도 과도한 영양분 섭취로 지방축적이 많은 지방계가 되어 산란율이 극히 저조한 닭이 되고만다.

표준체중을 고려하여 적은 병아리일 때 사료를 많이 먹어도 전체양은 적으므로 이때 무제한 급여를 실시하고 중추로 성장이 되면 목표체중과 맞게 제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경영에도 이점이 있다.

일단 육성계가 성계가 되어 산란 2~3주전이 되면 초생추시와 마찬가지로 산란을 위한 체력유지에 필요한 영양분 섭취를 위해 고영양분 사료로 바꾸어 준다.

적어도 7~8주령까지는 고단백질의 사료인 초생추 사료를 충분히 급이시키고 56일령에 체중이 목표체중과 같거나 초과되면 중추사료로 바꾸어 주는데 계속 미달상태가 되면 다시 초생추 사료로 급여한 후 목표체중에 도달하면 중추사료로 교체하여 준다.

56일령 이전에는 체중이 표준보다 많아도 제한급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때 중추사료는 조단백이 15%인 것을 사용해야

**표준체중을 고려하여 적은 병아리일 때 사료를 많이 먹어도 전체양은 적으므로 이때 무제한 급어를 실시하고 중추로 성장이 되면 목표체중과 맞게 제한급이를 실시하는 것이 경영에도 이점이 있다.**  
**일단 육성계가 성계가 되어 산란 2~3주전이 되면 초생추시와 마찬가지로 산란을 위한 체력유지에 필요한 영양분 섭취를 위해 고영양분 사료로 바꾸어 준다.**

하는데 15% 이하인 것은 육성사료로 알맞지 않다.

중추사료로 교체할 경우에는 120일령까지 체중을 고려하여 제한급이가 필요하다. 120일령이 넘으면 조단백이 16~18%, 칼슘이 2.0~2.5%의 사료로 교체해야 하는데 산란피크까지 체중감소를 방지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산란율 및 산란지속성이 좋지 않게 된다.

### ○질병관리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면 만물이 소생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이 심하게 차이가 나므로 체력이 자칫 잘못하면 약해질 수 있다.

많은 사양가들이 긴 겨울을 끝내고 학교의 개학과 더불어 계란소비가 붐파일이 나오는 때까지 계속 늘어나는 시기에 맞추어 산란계를 육추하였으리라고 보는데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질병관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심한 기온차에서 오는 호흡기질병이나 연중 발생하는 CRD, ILT, 뉴캐슬 등의 산란율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관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게 키워는 닭이라도 질병관리가 제대로 안돼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루아침에 손해를 입게 된다.

요즈음 특히 발병율이 높은 뉴캐슬병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신접종을 프로그램에 맞추어 실시해야 한다.

### ○계사관리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9월말부터 치기 시작하여 11월에 2중비닐까지 쳐놓은 상태이므로 기온이 웬만큼 올라가면 계사에 따라 설치시와 역순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겨울동안 쌓인 오물을 해빙과 동시에 제거를 하고 계사주위를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각종 질병을 막을 수 있고 세균증식이나 곤충발생억제에도 도움이 된다.

환기를 고려하여 낮동안 걸어올린 창문이나 이중비닐 하단을 밤이 되면 반드시 내려주어 급격한 온도변화를 맞아 산란율 저하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금년은 어쨌든 산란계의 감소로 금년 상반기동안은 계란값이 60원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렇다고 이때부터 초생추입추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현재 보유할 수 있는 능력만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가능하면 산란율을 높여 실제 소득면에서 이득을 취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 양계인들이 값이 좋다고 일시에 과잉생산을 하게 되면 채란계 산업은 영원히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양계**